

# ‘겠’과 ‘ㄹ 것’\*

李 南 淳\*\*

## I

‘겠’의 樣態的 意味는 이미 周時經(1910)에서 ‘거짓 뜻함’으로, 朴勝彬(1935)에서 ‘可能’, ‘推量’으로 論議되었다. 이러한 論議는 申昌淳(1975)에 와서 ‘겠’이 話者의 主觀的 推斷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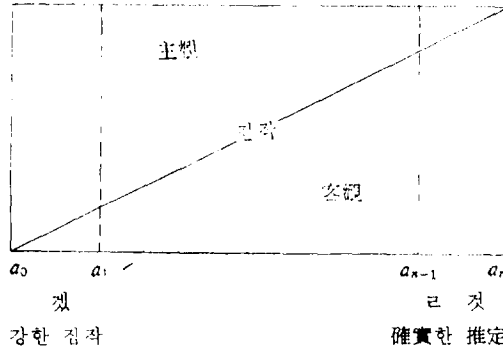
‘겠’과 함께 ‘ㄹ 것’을 比較하기 시작한 것은 李廷玟(1975)과 成耆徹(1976)이다. 그 후 ‘겠’과 ‘ㄹ 것’의 意味 究明은 서정수(1978)과 李基用(1978)에서 서로 相對的인 結論을 얻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는 정채된 감이 있다.

‘겠’과 ‘ㄹ 것’의 比較에서 그 基準이 된 것은 ‘主觀性’과 ‘客觀性’이었다. 서정수(1978)과 李基用(1978)은 ‘겠’과 ‘ㄹ 것’이 모두 ‘집작’을 나타낸다고 한 점에서는 一致하고 있다. 그러나 前者에서는 ‘客觀性의 強弱’이 比較의 基準이 되어 있고, 後者에서는 ‘主觀性의 強弱’이 比較의 基準이 되어 있다. 前者는 ‘ㄹ 것’이 客觀的인 根據를 바탕으로 하는 집작이므로 ‘確實한 推定’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後者는 ‘겠’이 話者의 ‘主觀的인 確信’을 나타내므로 ‘강한 집작’이라고 하였다. ‘집작’을 全體로 把握하고 그 強弱을 主觀과 客觀의 側面에서 나타내면 다음 面의 도표와 같이 圖示할 수 있을 것이다.

主觀性과 客觀性의 強弱은 ‘집작’의 強弱을 나타내는 基準이 되지 않는다.” 다음 面의 도표가 보여 주듯이 主觀性의 強度가 높거나 客觀性의 強度가 높거나 모두 ‘강한 집작’ 혹은 ‘確實한 推定’이 되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拙稿(1981)의 Ⅱ장 2.2절 “겠”과 “ㄹ 것”을 補完한 것임을 밝힌다.

\*\* 人文大 助教, 博士課程(國語學 專攻)



‘겻’과 ‘ㄹ 것’은 그 機能과 쓰임에 있어 별 差異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 兩者 사이에는 主觀性和 客觀性的 強弱 以上の 差異가 存在한다.

‘집작’은 判斷이며 그 判斷은 話者 自身の 것일 수도 있고 話者나 聽者 또는 그 以外的 第三者와의 包括的인 判斷일 수도 있다. 本稿은 이러한 ‘집작’의 두가지 面을 中心으로 ‘겻’과 ‘ㄹ 것’을 比較하여 그 機能을 밝히는 데 目的이 있다.

## II

主觀性和 客觀性的 區別은 ‘집작’ 즉 主觀的인 判斷에 관한 한 無意味한 것이다. 判斷은 그것이 話者만의 것이냐 아니냐의 區別을 할 수는 있으나 主觀的이나 客觀的이나의 區別을 할 수는 없다.

- (1) a. 내일은 시베리아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 b. ?내일은 시베리아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입니다.

1) 成善徹(1979)에서 ‘겻’과 ‘ㄹ 것’을 經驗的 時間的 差異에 依한 辨으로 다루면서 ‘겻’과 ‘ㄹ 것’이 主觀性和 客觀性的 問題가 아님을 밝혔다. 임흥빈(1980)에서는 ‘겻’의 의미특성을 대상성의 원리로 해명하면서 ‘겻’이 확신의 강약이나 추정의 강약으로는 규정될 수 없는 것임을 밝혔다.

- (2) a. 일기예보대로라면 내일 비가 올 것이다.  
 b. ?일기예보대로라면 내일 비가 오겠다.

(1)에서는 ‘ㄹ 것’이 쓰이는 것보다 ‘겠’이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2)에서는 ‘겠’이 쓰이는 것보다 ‘ㄹ 것’이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1)에서의 ‘시베리아에 위치한 고기압’과 (2)에서의 ‘일기예보’는 判斷의 客觀的 根據가 되고 있다. 客觀이란 主觀의 客體이다. (1)과 (2)는 모두 客觀的 根據에 對한 話者의 主觀的 判斷이다. 그러나 (1)과 (2)는 判斷의 成立 過程이 서로 다르다. (1)은 ‘시베리아에 위치한 고기압’을 根據로 하여 話者인 日氣通報官이 내일의 日氣를 判斷하는 것이고, (2)는 ‘일기예보’를 根據로 하여 話者가 來日의 日氣를 判斷하는 것이다. (1)에서는 日氣通報官이 ‘시베리아에 위치한 고기압’에 根據하여 通報官으로서의 主觀的 判斷을 내리고 있다. (2)에서는 日氣通報官이 通報官으로서 내린 主觀的 判斷이 ‘일기예보’이며, ‘일기예보’는 이것을 보거나 듣는 사람들에게는 客觀的인 根據가 된다. (2)에서 話者는 ‘일기예보’라는 客觀的인 根據에 立脚하여 主觀的 判斷을 내리고 있다. (1)에서 이루어지는 判斷은 話者(즉 일기통보관) 혼자만의 判斷이다. (2)에서 이루어지는 判斷은 ‘일기예보’라는 客觀的 根據에 依한 것인데, 일기통보관의 ‘일기예보’를 보고 내리는 내일의 日氣에 對한 判斷은 話者 혼자만이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聽者도 ‘일기예보’를 보고 話者의 判斷과 같은 判斷을 내릴 수 있을 것이며 話者나 聽者 以外の 第三者도 ‘일기예보’를 보고, 話者의 判斷과 같은 判斷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에서의 判斷은 話者 혼자만의 判斷이지만, (2)에서의 判斷은 話者가 혼자만의 判斷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聽者 혹은 第三者의 判斷도 話者 自身の 判斷과 어긋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리는 判斷이다.

- (3) a. 내 느낌에는 그이가 내일 떠나겠다.  
 b. ?내 느낌에는 그이가 내일 떠날 것이다.  
 (4) a. ?일정표에 따라 그이가 내일 떠나겠다.

b. 일정표에 따라 그이가 내일 떠날 것이다.

(3)과 (4)는 서정수(1978)에서 引用한 것이다. (3)에서는 ‘ㄹ 것’보다는 ‘겠’이 쓰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4)에서는 ‘겠’보다는 ‘ㄹ 것’이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3)은 순전히 話者 혼자만의 判斷을 나타낸다. (4)는 ‘일정표’라는 客觀的인 根據에 立脚한 話者의 主觀的 判斷을 나타낸다. 그러나 ‘일정표’는 이미 決定된 事件들의 豫定表이므로 ‘일정표’를 보고 내리는 判斷은 話者 혼자만이 내리는 判斷만은 아니다. 聽者는 물론 第三者도 話者와 같은 判斷을 내릴 수 있다. (3)a에서의 判斷은 話者 혼자만의 判斷이지만, (4)b에서의 判斷은 聽者와 第三者의 判斷도 包括하는 것이다.

(5) a. 철수는 키가 커서 소형버스를 타면 불편하겠다.

b. 철수는 키가 커서 소형버스를 타면 불편할 것이다.

(6) a. 먹어 보지는 않았지만, 맛은 있겠다.

b. 먹어 보지는 않았지만, 맛은 있을 것이다.

(5)와 (6)에서는 (1)~(4)와는 달리 ‘겠’과 ‘ㄹ 것’이 모두 자연스럽게 쓰인다. (5)에서는 철수의 큰 키가 判斷의 根據가 되는 반면에 (6)에서는 判斷의 根據가 存在하지 않는다. (5)에서 철수의 큰 키는 客觀的인 根據이며, 話者는 이를 根據로 하여 主觀的인 判斷을 내리고 있다. (6)에서는 話者가 어떤 判斷의 根據없이 主觀的인 判斷을 내리고 있다. 여기서 ‘겠’과 ‘ㄹ 것’의 差異는 判斷의 根據가 主觀的이나 客觀的인나의 差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7) a. ? 그만 가자. 철수는 바빠서 못 오겠다.

b. 그만 가자. 철수는 바빠서 못 올 것이다.

(7)a는 (7)b보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다. (7)에서 기다리지 말고 그만 가자고 하는 提案은 話者가 내린 判斷의 結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7)a와 (7)b에서 보여 주는 話者의 判斷은 그 內容이 다

르다. (7)에서 話者의 提案은 話者의 主觀的인 判斷의 結果이지만 적어도 聽者의 判斷도 이에 어긋남이 없을 것임을 要求한다. 따라서 (7)a에서는 提案의 根據가 話者 혼자만의 判斷이고, (7)b에서는 提案의 根據가 話者 以外에도 聽者나 第三者의 判斷을 包括하므로 (7)a보다는 (7)b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해석된다.

- (8) a. 빨리 가. 늦겠다.
- b. ? 빨리 가. 늦을 것이다.

(7)에서와는 달리 (8)에서는 ‘ㄹ 것’보다 ‘겠’이 자연스럽게 쓰인다. (7)에서 話者의 提案 根據는 聽者와 第三者의 判斷을 包括하지만, (8)에서 話者의 提案은 聽者나 第三者의 判斷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8)에서 話者의 判斷은 聽者의 判斷과 對立의 일 수가 있다. 話者는 늦어서 빨리 가야 한다고 判斷하지만, 聽者는 늦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거나 빨리 갈 必要가 없다고 判斷하는 것이다. 따라서 ‘겠’이 쓰이는 (8)a가 自然스럽다.

- (9) a. 한번 먹어 보자. 음식은 달라도 맛은 있겠다.
- b. 한번 먹어 보자. 음식은 달라도 맛은 있을 것이다.

(9)에서는 ‘겠’과 ‘ㄹ 것’이 모두 자연스럽게 쓰인다. (9)a에서 話者의 提案은 話者 혼자만의 判斷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9)b에서 話者의 提案은 聽者의 判斷을 包括하는 話者의 判斷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前者에서는 음식이 話者와 聽者 앞에 놓여졌을 때, 話者가 음식에 對한 혼자만의 判斷으로서 聽者에게 提案하는 것이고, 後者에서는 話者가 自身의 判斷이 聽者가 음식에 대하여 내리는 判斷內容과 一致하리라고 判斷하고 聽者에게 提案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聽者의 判斷은 話者의 判斷과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10) a. 한번 먹어 봐. 나도 먹어 보지는 않았지만 맛은 있겠다.
- b. 한번 먹어 봐. 나도 먹어 보지는 않았지만 맛은 있을 것이다.

(10)은 (6)에 狀況을 부여한 것이다. (10)에서 ‘졌’과 ‘근 것’은 모두 자연스럽게 쓰인다. (10)a는 음식의 맛에 대한 話者 혼자만의 判斷으로 聽者에게 勸誘하는 것이다. (10)b는 話者가 自身이 내린 判斷이 聽者가 내릴 判斷과 어긋남이 없을 것이라는 判斷下에, 聽者에게 勸誘하는 것이다. (10)b에서 話者의 判斷은 聽者의 判斷을 包括한다.

‘졌’과 ‘근 것’은 그들이 나타내는 判斷의 主觀性和 客觀性的 強弱에 의해 區別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主觀性이 強하면 相對的으로 客觀性이 弱해지는 것이며, 客觀性이 強하면 相對的으로 主觀性이 弱해지는 것이므로 ‘졌’과 ‘근 것’의 意味 究明에서 主觀性的 強弱과 客觀性的 強弱 중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主觀性和 客觀性은 서로 相對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判斷은 主觀的인 것이며 客觀은 判斷( 곧 主觀)의 客體일 뿐이다.

成書徹(1979)은 ‘졌’과 ‘근 것’이 經驗의 時間的 差異에 따라 辨別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經驗의 時間的 差異는 ‘졌’과 ‘근 것’을 區別하는 絶對的인 基準이 될 수 없다.

- (11) a. 십년 전에는 꼬마였는데 지금은 많이 컸겠다.  
b. 십년 전에는 꼬마였는데 지금은 많이 컸을 것이다.

(11)a, b에서 나타나는 判斷의 根據는 同一하며, ‘졌’과 ‘근 것’이 모두 자연스럽게 쓰인다. 그러나 (11)a, b에서 이른바 ‘經驗時’와 ‘發話時’의 時間的 差異가 다르게 나타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11)에서 判斷의 根據는 10년 전의 꼬마인데 判斷의 根據가 (11)a에서는 現在의 經驗이고, (11)b에서는 過去의 經驗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11)a, b에서 ‘經驗時’와 ‘發話時’의 거리 차이가 얼마 안 되었을 때, (11)a가 자연스럽거나 (11)a만이 가능하지는 않으며, 거리가 아주 멀어졌을 때 (11)b만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經驗時와 發話時의 거리 差異는 判斷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따라 제각기 달라질 수 있으며, 時間的 差異에 對한 認識은 話者에 따라 差異를 보일 수

도 있다.

- (12) a. 철수가 좋아하는 것을 보니, 철수가 1등 했겠다.
- b. 철수가 좋아하는 것을 보니, 철수가 1등했을 것이다.

(12)에서 話者는 철수가 좋아하는 現在の 狀況에 判斷의 根據를 둔 것인데, ‘졌’과 ‘ㄹ 것’은 모두 자연스럽게 쓰인다. 만약 ‘ㄹ 것’이 過去の 經驗, 즉 經驗 當時로부터 먼 過去の 經驗에 判斷의 根據를 두는 경우에 쓰이고, ‘졌’이 經驗 當時에 가까운 經驗에 判斷의 根據를 두는 경우에 쓰이는 것이라면, (12)a, b는 어떻게 區別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 (13) a. 이 사람 죽겠어.
- b. 이 사람 죽을 거야.

(13)은 成書徹(1979)에서 그대로 引用한 것인데, 交通事故의 被害者에 對한 行人의 判斷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13)이 醫師의 判斷이라고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前者의 경우에서 行人의 交通事故 被害者에 對한 經驗이 ‘졌’과 ‘ㄹ 것’의 選擇을 결정한다고 하면, 後者에서는 醫師의 交通事故 被害者에 對한 經驗이 ‘졌’과 ‘ㄹ 것’의 選擇을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交通事故 被害者를 醫師가 처음 보았을 때 그 被害者의 狀態에 따라 醫師의 判斷이 (13)a, b의 어느쪽을 選擇할 것인지는 자못 궁금하다. 醫師는 그 被害者의 狀態에 관계없이 (13)a의 判斷 형식을 擇할 것이다.

- (14) a. 영희가 배가 고프겠다.
- b. 영희가 배가 고프 것이다.

(14)에서 ‘졌’과 ‘ㄹ 것’이 모두 자연스럽게 쓰인다. (14)에서 ‘졌’과 ‘ㄹ 것’의 選擇은 經驗의 時間的인 差異에서 비롯되는 것 같지 않다.

- (15) a. 아침도 못 먹었는데 영희가 배가 고프겠다.

b. 아침도 못 먹었는데 영희가 배가 고플 것이다.

(15)는 (14)에 狀況을 부여한 것이다. 이때 영희가 아침을 못 먹은 것은 話者에게 判斷의 根據가 된다. ‘근 것’이 話者의 判斷 根據가 ‘完全 過去의 經驗’이 되었거나, ‘現在의 經驗임과 同時に 過去의 經驗’일 경우에 쓰인다면, (15)b에서 영희가 아침을 못 먹은 것이 前者의 경우인지 後者의 경우인지 分明하지 않을 뿐더러, 經驗의 時間的인 差異도 認識되지 않는다. 또한 ‘겠’이 經驗 當時의 狀況에 判斷의 根據를 둔 것이라면, (15)a의 判斷은 (15)b와 比較해서 그 根據가 되는 狀況과 어느 정도 멀고 가까운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16) a. 영희가 삼일을 굶었다니, 배가 매우 고프겠다.

b. 영희가 삼일을 굶었다니, 배가 매우 고프 것이다.

(16)은 話者와 聽者 그리고 第三者인 영희가 言述狀況(atlerauce situation)과 관계를 맺고 있다. (16)은 모두 客觀的 根據에 對한 話者의 主觀的 判斷이다. (16)a에서 話者는 聽者에게 自己 혼자만의 判斷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聽者의 判斷과는 別個의 것이다. (16)b에서 話者는 聽者가 내린 判斷과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判斷을 내리고 있다. 判斷은 主觀的인 것이다. (16)에서도 經驗의 時間的인 差異는 認識되지 않는다.

經驗의 時間的인 差異나 主觀性和 客觀性的 強弱은 ‘겠’과 ‘근 것’의 쓰임을 決定하는 基準이 될 수 없다.

## II

(17) a.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b.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17)은 警句이다. 警句는 道德上的 어떤 眞理를 表現한 글이다. 警句



는 話者, 聽者, 혹은 餘他의 사람들에게 一般的으로 받아 들여지는 眞理이다. (17)a는 어색하다. ‘겠’은 話者 혼자만의 判斷을 나타내므로 (17)과 같은 警句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반면에 (17)b는 매우 자연스럽다. ‘ㄹ겠’은 話者가 自身の 判斷이 聽者나 第三者의 判斷에도 어긋남이 없다고 判斷하는 데 쓰이는 것이므로 警句에는 (17)b가 매우 자연스럽게 쓰인다.

李基用(1978)에서 指摘된 (18)과 같은 婉曲語法을 살펴 보기로 하자.

- (18) a. 모르겠다/\*나는 모를 것이다.  
 b. 나는 좋아 죽겠다/\*나는 좋아 죽을 것이다.

(17)과는 달리 (18)에서는 ‘겠’만이 쓰인다. ‘ㄹ겠’은 話者가 聽者나 第三者의 判斷을 包括하는 判斷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이므로, (18)에서 ‘ㄹ겠’의 쓰임은 許用되지 않는다.

敘述文에서 ‘겠’은 聽者나 第三者의 判斷이 介入되지 않는 話者의 排除的인(exclusive) 判斷을 나타내며, ‘ㄹ겠’은 聽者나 第三者의 判斷도 排除하지 않는 話者의 包括的인(inclusive) 判斷을 나타낸다.

- (19) a. 그가 옳겠다.  
 b. 그가 옳을 것이다.

(19)는 그의 옳고 그름에 對한 話者의 判斷을 나타낸다. (19)a, b는 一見 差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差異가 存在한다.

- (20) a. 1. (내가 생각하기에) 그가 옳겠다.  
 2. (\*내가 생각하기에) 그가 옳을 것이다.  
 b. 1. (\*네가 생각하기에) 그가 옳겠다.  
 2. (네가 생각하기에) 그가 옳을 것이다.  
 c. 1. (\*철수가 생각하기에) 그가 옳겠다.  
 2. (철수가 생각하기에) 그가 옳을 것이다.

(20)은 (19)에 狀況을 부여한 것이다. (20)에서 괄호 속의 內容은 介

入되는 判斷의 主體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20)a는 話者 혼자만의 判斷을 나타낸 경우이고, (20)b는 話者の 判斷에 聽者의 判斷이 介入된 경우이며, (20)c는 話者の 判斷에 第三者인 철수의 判斷이 介入된 경우이다. (20)에서 ‘겠’이 話者の 排除的인 判斷을 나타내므로 (20)a.1은 자연스럽다. (20)a.2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ㄹ 것’이 話者만의 判斷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20)b에서 聽者의 判斷이 介入되면 ‘겠’이 쓰인 (20)b.1은 어색하다. 반면에 (20)b.2는 자연스럽다. (20)c에서 第三者의 判斷이 介入되면 (20)b.1에서와 같이 ‘겠’이 쓰인 (20)c.1은 어색하며, ‘ㄹ 것’이 쓰인 (20)c.2는 자연스럽다.

- (21) a. 철수에게는 순희가 소중하겠지.  
b. 철수의 생각에는 순희가 소중하겠지.

(21)은 철수나 철수의 생각에 대한 話者의 (主觀的인) 判斷이며 철수의 생각이나 聽者의 생각이 어떠하든지간에 이에 대한 話者 혼자만의 排除的인 判斷을 나타낸다.

- (22) a. 철수에게는 순희가 소중하겠다.  
b. 철수에게는 순희가 소중할 것이다.  
(23) a. \*너도 잘 알고 있지만, 철수에게는 순희가 소중하겠다.  
b. 너도 잘 알고 있지만, 철수에게는 순희가 소중할 것이다.

(22)는 ‘겠’과 ‘ㄹ 것’이 쓰여서 모두 話者의 判斷을 나타낸다. (22)에서 a와 b의 差異는 (23)에서 잘 나타난다. (23)은 적어도 話者뿐만 아니라 聽者도 순희가 철수에게 소중하다는 判斷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話者의 判斷은 聽者의 判斷과 어긋나지 않으므로 話者의 判斷이 聽者의 判斷까지도 包括하는 경우이다. 이때 ‘겠’이 쓰인 (23)a는 어색하다. 반면에 ‘ㄹ 것’이 쓰인 (23)b는 자연스럽다.

- (24) a. 읽어 봐, 재미가 있겠다.

- b. 읽어 봐, 재미가 있을 것이다.
- (25) a. 우산을 쓰고 갔으니, 비는 맞지 않겠다.
- b. 우산을 쓰고 갔으니, 비는 맞지 않을 것이다.

(24), (25)에서 ‘졌’이 쓰이거나 ‘ㄹ 것’이 쓰이거나 모두 자연스럽다. (24)에서는 成書徹(1979)에서 밝힌 時間的 差異가 ‘졌’과 ‘ㄹ 것’의 選擇을 決定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5)에서는 經驗的 時間的 差異는 認定되지 않는다. (24)a는 話者 혼자만의 判斷이지만, (24)b는 話者가 내리는 判斷이 聽者가 내리는 聽者과 어긋남이 없을 것이라는 判斷下에, 聽者에게 勸誘하는 것이다. 따라서 (24)a, (25)a는 話者의 排除的인 判斷을 나타내며, (24)b, (25)b는 話者의 包括的인 判斷을 나타낸다.

- (26) a. 네가 옳겠다.
- b. 네가 옳을 것이다.
- (27) a. 1.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옳겠다.
- 2.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옳을 것이다.
- b. 1.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옳겠다.
- 2.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옳을 것이다.
- c. 1. (\*철수가 생각하기에) 네가 옳겠다.
- 2. (철수가 생각하기에) 네가 옳을 것이다.

(26)은 앞에서 보인 (19)와는 달리 主語가 聽者와 同一하다. (27)은 (26)에 判斷이 介入된 것을 나타낸다. (27)a는 話者 혼자만의 判斷을 나타낸 경우이고, (27)b는 話者의 判斷에 聽者의 判斷이 介入된 경우이며, (27)c는 話者의 判斷에 第三者인 철수의 判斷이 介入된 경우이다. (26)a, b는 모두 자연스럽다. 그러나 兩者의 差異는 (27)에서 잘 나타난다. (27)에서 ‘졌’의 쓰임은 (27)a.1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졌’이 排除的인 判斷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편, (27)에서 ‘ㄹ 것’의 쓰임은 (27)b.2, (27)c.2에서만 가능한데, 그것은 ‘ㄹ 것’이 包括的인 判斷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28) a. 내가 옳겠다.  
 b. 내가 옳을 것이다.
- (29) a. 1.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겠다.  
 2.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을 것이다.
- b. 1.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겠다.  
 2.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을 것이다.
- c. 1. (\*철수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겠다.  
 2. (철수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을 것이다.

(28)은 (19), (26)과는 달리 主語가 話者와 同一人인 경우이다. (29) a는 話者 혼자만의 判斷을 나타낸 경우이고, (29)b는 話者의 判斷에 聽者의 判斷이 介入된 경우이며, (29)c는 話者의 判斷에 第三者인 철수의 判斷이 介入된 경우이다. (28)a, b는 모두 자연스럽다. 한편 (29)에서 ‘겠’은 (29)a.1에서만 나타나며, ‘ㄹ 것’은 (29)b.2,와 c.2에서 나타난다. 이미 (19), (26)에서도 ‘ㄹ 것’과 ‘겠’의 差異를 보였는데 (28)에서도 ‘겠’은 排除的인 判斷을, ‘ㄹ 것’은 包括的인 判斷을 나타낸다.

(19), (26), (28)에서 보았듯이 ‘겠’이나 ‘ㄹ 것’은 그들이 나타나는 문장의 主語와는 어떤 制約關係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겠’과 ‘ㄹ 것’은 그것들이 나타나는 문장에서 話者, 聽者, 그리고 第三者의 判斷과 關係를 맺으면서, 前者는 聽者나 第三者의 判斷이 介入되지 않는 排除的인 判斷을 나타내며 後者는 聽者나 第三者의 判斷을 許用하는 包括的인 判斷을 나타낸다.

以上에서 敘述文을 中心으로 살펴 보았는데 疑問文에 나타나는 ‘겠’과 ‘ㄹ 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 (30) a. 1. 그가 옳겠니?  
 2. \*그가 옳을 것이니?
- b. 1. 네가 옳겠니?  
 2. \*네가 옳을 것이니?
- c. 1. 그가 옳겠니?

2. \*그가 옳을 것이니?

(30)의 疑問文에서 話者는 聽者의 判斷을 要求한다. 疑問文에서는 (30)a. 1, b. 1, c. 1에서와 같이 ‘졌’이 쓰이는데 이때 ‘졌’은 聽者의 排除的인 判斷을 나타낸다. ‘ㄹ 것’이 쓰인 (30)a. 2, b. 2, c. 2는 話者가 聽者의 排除的인 判斷을 要求할 수 없기 때문에 어색하다. 疑問文은 그 것이 聽者의 判斷을 要求하는 한 ‘ㄹ 것’은 使用될 수 없다.

- (31) a. 1. (\*내가 생각하기에) 그가 옳겠니?
- 2. (\*내가 생각하기에) 그가 옳을 것이니?
- b. 1. (내가 생각하기에) 그가 옳겠니?
- 2. (\*내가 생각하기에) 그가 옳을 것이니?
- c. 1. (\*철수가 생각하기에) 그가 옳겠니?
- 2. (\*철수가 생각하기에) 그가 옳을 것이니?
- (32) a. 1.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겠니?
- 2.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을 것이니?
- b. 1.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겠니?
- 2.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을 것이니?
- c. 1. (\*철수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겠니?
- 2. (\*철수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을 것이니?
- (33) a. 1.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겠니?
- 2.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을 것이니?
- b. 1.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겠니?
- 2.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을 것이니?
- c. 1. (\*철수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겠니?
- 2. (\*철수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을 것이니?

(31), (32), (33)은 각각 (30)a, b, c에 狀況을 부여한 것인데, ‘졌’이 나타나는 (31)b. 1, (32)b. 1, (33)b. 1만이 가능하다. 이들은 모두 判斷을 내리는 主體가 聽者일 경우이다. ‘졌’은 疑問文에서 聽者의 排除的인 判斷을 나타내는 데 쓰이지만, ‘ㄹ 것’은 日常的인 對話에서는 쓰이지 않는다.<sup>2)</sup>

2) 疑問文에서 ‘ㄹ 것’은 新聞의 題號나 기타 公刊物에 잘 나타난다. 예컨대,

- (34) a. 그가 옳을 것 같니?  
 b. 네가 옳을 것 같니?  
 c. 내가 옳을 것 같니?

그러나 (34)에서와 같이 ‘그 것’에 ‘같다’가 結合되어 나타나면 쓰일 수 있다. 이때 ‘그 것 같니?’는 聽者의 排除的인 判斷을 묻는 것이 된다. ‘같다’는 하나의 語辭가 아니다(金完鎮, 1970 참조)

- (35) a. A가 B이다.  
 b. A가 B같다.

(35)a는  $A=B$ 라는 斷定을 나타내어 주지만, (35)b는 “A가 B같다”는 判斷을 나타내어 준다.

- (36) a. A가 B이니?  
 b. A가 B같니?

(36)은 (35)를 疑問文으로 고친 것이다. (36)a는 話者가 聽者에게 ‘A가 B인가’를 묻는 것이며, (36)b는 話者가 聽者에게 ‘A가 B같은’ 것인지 묻는 것으로 話者가 聽者의 判斷을 要求하는 것이다.

- (37) a. 1. B이다.  
           2. B같다.  
 b. 1. B이니?  
       2. B같니?

(35)와 (36)은 國語에서 一般的으로 主語가 省略되는 現象이 있음을 引起할 때 (37)a, b로 각각 쓸 수 있을 것이다.

- (37)' a. 1. B(그가 옳을 것)이다.

‘사다트는 退進할 것인가, 카터는 當選될 것인가’와 같이 쓰이는데 日常의 對話에서 話者가 聽者에게 묻는 疑問文과는 같다고 할 수 없다. 이것들은 話者나 聽者 모두에게 共通的인 關心事를 提供하거나, 그것에 對한 關心을 喚起하는 경우이다.

2. B(그가 옳을 것)같다.
- b. 1. B(\*그가 옳을 것)이니?
2. B(그가 옳을 것)같니?

(37)'는 (37)에 B대신 '그가 옳을 것'을 넣어 본 것이다. (37)' a. 1은 'A가 B(그가 옳을 것)이다.'라는 斷定이다. (37)' a. 2는 'A가 B(그가 옳을 것)같다'라는 話者의 判斷을 나타낸다. 이때 B(그가 옳을 것)는 話者만이 내리는 判斷도 아니며, 聽者만의 判斷도 아니며, 第三者의 判斷도 아니다. 다만 '그의 옳고 그름'의 選擇 自體일 뿐이다. (37)' b에서 (37)' b. 1은 어색하다. 그것은 B(그가 옳을 것)가 話者나 聽者 혹은 第三者 中에서 어느 한 쪽의 判斷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7)' b. 1에서와 같이 聽者의 斷定만을 要求하는 斷定的 疑問文에서는 어색해진다. 한편 (37)' b. 2는 자연스럽다. (37)' b. 2는 A가 B(그가 옳을 것) 같은지에 대한 聽者의 判斷을 묻는 判斷의 疑問이기 때문이다. 'A가 B(그가 옳을 것)이다'는 斷定이며, B는 話者, 聽者, 第三者 中 어느 누구의 判斷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A가 B(그가 옳을 것)이다'가 言述에서 選擇되면 '그가 옳을 것이다'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話者의 斷定的 判斷을 나타낸다. 즉 B(그가 옳을 것)는 話者, 聽者 또는 第三者의 어느 한쪽만의 判斷도 아니며, B 자체는 客觀的인 意味의 結晶일뿐이므로, 話者의 斷定은 聽者의 判斷도 第三者의 判斷도 排除하지 않는다. 그러나 'A가 B이니?'에서는 話者가 聽者만의 斷定的 判斷을 要求하는 것인 반면에, B(그가 옳을 것) 自體는 聽者는 물론 話者나 第三者의 單獨的인 判斷의 介入을 許用하지 않는 것이므로 'A가 B(그가 옳을 것)이니?'는 어색해진다.

- (38) a. A가 B(이)겠다.
- b. A가 B(이)겠니?
- (39) a. B(이)겠다.
- b. B(이)겠니?

(35)a의 ‘A가 B이다’가 斷定的 判斷이라면, (38)a는 同一의 判斷이다. (38)b는 話者が 聽者에게  $A=B$  이겠는지를 묻는 것이다. (38)은 (39)와 같이 省略되어 나타날 수 있다.

- (39)′ a. B(그가 옳)겠다.  
b. B(그가 옳)겠니?

(39)′ a는 (39)에 B대신 ‘그가 옳’을 넣어 본 것이다. ‘B(이)겠다’의 構造는 判斷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37)′ a. 2의 ‘B같다’ 構造와 같으나, 前者는 同一判斷, 즉 A가 B와 同一할 것인지에 대한 判斷을 나타내며, 後者는 擬似判斷을 나타낸다(金完鎭 1970 참조). (39)′ a는 話者の 同一判斷을 나타내며, (39)′ b는 話者が 聽者の 同一判斷을 묻는 것이다.

- (40) a. B(그가 옳을 것)이다. ((37)′ a.1)  
b. B(그가 옳)겠다. ((39)′ a)

(40)a에서 B 自體는 話者の 判斷도, 聽者の 判斷도, 第三者의 判斷도 排除하지 않는, 따라서 항상 客觀的인 것이다. ‘A가 B(그가 옳을 것)이다’는 斷定的 判斷으로서 聽者の 判斷도, 第三者의 判斷도 排除하지 않는 包括的인 判斷이다. 반면 (40)b에서 ‘B(그가 옳)’은 그 選擇 自體가 判斷을 내리는 話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A가 B(그가 옳)겠다’는 聽者나 第三者의 判斷을 排除하는 排除的인 判斷을 나타낸다.

‘근 것’과 類似하게 쓰이는 것으로 ‘근거’가 있는데 一般的으로 混用하여 論議하는 경우<sup>3)</sup>도 있고 ‘근 것’의 축약형으로 論議하는 경우<sup>4)</sup>도 있다. ‘근거’는 ‘근 것’과 그 分布에 있어 差異를 보인다. 이미 앞에서 살펴 본 例文들에서 疑問文일 경우 ‘근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3) 成基徹(1979) 참조.

4) 서경수(1978)에서는 축약형이 원형과 그 뜻이 달라진다고 볼 만한 경우도 있으나 의미적인 공통성이 있다고 하였다.



敘述文에서는 ‘ㄹ 거’가 ‘ㄹ 것’과 대체로 같은 分布를 보인다. 한편 ‘ㄹ 거’는 疑問文에서 나타나는데 制約이 있다.

- (41) a. \*칠수가 먹을 것이니?  
 b. 칠수가 먹을거니(있을거니, 입울거니, 잘거니)?  
 c. \*칠수가 옴을 것이니?  
 d. \*칠수가 옴울거니(학생일거니, 알고 있을거니):

(41)의 疑問文에서 動作主가 있는 (41)b에서만 ‘ㄹ 거’가 쓰인다. 筆者는 서술문에서 ‘ㄹ 거’가 ‘ㄹ 것’과 같은 分布를 보이면서 쓰이는데 비해, 疑問文에서는 ‘ㄹ 것’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ㄹ 거’가 제약되기는 하지만 쓰이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더불어서 ‘ㄹ 거’가 과연 ‘ㄹ 것’의 축약형인지는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없다. 後稿를 기대한다.

#### IV

- (42) a. 1. 내가 입겠다(입을 것이다).  
 2. 네(칠수)가 입겠다(입을 것이다).  
 b. 1. 내가 덤겠다(더울 것이다).  
 2. 네(칠수)가 덤겠다(더울 것이다).

一般的으로 ‘겠’과 ‘ㄹ 것’은 話者(疑問文에서는 聽者)가 文章의 主語로 나타나는 同時에 動作性을 나타내는 動詞와 함께 쓰이면 意志(혹은 意圖)를 나타낼 수 있다.<sup>5)</sup> (42)a는 動作性을 나타내는 動詞가 쓰인 경우로서 (42)a.1은 話者(=主語)의 意志를 나타낼 수가 있지만 (42)a.2는 意志를 나타내지 않는다. 한편 (42)b는 動作性을 나타내지 않는 形

5) 서정수(1978)는 話者 自身の 行動者가 될 때 ‘ㄹ 것’이 ‘기어이’ ‘반드시’ 등이 쓰이는 특수한 상황에서 意圖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겠’은 一次的으로 意圖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한편 李翊燮(1978)에서는 被動文과 能動文에 對한 言及에서 ‘겠’이 能動文에서는 意志를 나타내고 被動文에서는 推測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容詞가 쓰인 경우로서 모두 意志를 나타내지 않는다.

- (43) a. 내가 사과를 먹을 것이다.  
b. 내가 사과를 먹을거다.

(43)은 ‘ㄹ 것’과 ‘ㄹ 거’가 쓰이는 경우이다. (43)이 意志를 나타낼 경우에 意志의 뜻은 (43)a보다는 (43)b에서 強하게 나타나는데 ‘ㄹ 것’과 ‘ㄹ 거’의 明確한 差異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差異 역시 밝혀지지 않을 것 같다. 本稿에서는 ‘겠’과 ‘ㄹ 것’이 動作性を 나타내는 動詞들과 結合되어 나타날 때 意志를 나타낸다는 論議에 대하여 再考하면서 ‘겠’과 ‘ㄹ 것’이 과연 意志를 固有한 機能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論議하고자 한다.

- (44) a. 1. 나는 차라리 학생이겠다.  
2. 나는 차라리 학생일 것이다.  
3. 나는 차라리 학생일거다.  
b. 1. 나는 이곳에 있겠다.  
2. 나는 이곳에 있을 것이다.  
3. 나는 이곳에 있을거다.  
c. 1. 나는 차라리 키가 작겠다.  
2. 나는 차라리 키가 작을 것이다.  
3. 나는 차라리 키가 작을거다.  
d. 1. 나는 고기를 잡겠다.  
2. 나는 고기를 잡을 것이다.  
3. 나는 고기를 잡을거다.  
e. 1. 나는 너 대신 잡히겠다.  
2. 나는 너대신 잡힐 것이다.  
3. 나는 너대신 잡힐거다.  
f. 1. 옷이 다르겠다.  
2. 옷이 마를 것이다.  
3. 옷이 마를거다.

(44)a, b, c는 動作性を 갖지 않는 動詞들이 나타나는 경우이지만 充

分히 意志를 나타낼 수 있다. (44)a, c에서 副詞 ‘차라리’가 갖는 意味는 ‘A보다는 B’라는 選擇의 意味이다. 따라서 主語인 ‘나’ (=話者)는 選擇의 主體가 되어 ‘나’의 判斷에 따라 ‘학생’이나 ‘키 작음’이 選擇된다. 選擇의 前提는 判斷이다. 結局 意志는 選擇의 判斷인데 言述의 狀況(utterance situation)에서 話者에 依해서 이루어지는 選擇의 判斷이다. ‘겠’과 ‘ㄹ 것’이 쓰여서 判斷을 나타내는 一般的인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同一, 斷定的 判斷이지만, 意志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選擇判斷이다. (44)가 意志를 나타내는 경우에 (44)a는 ‘指定’에 대한 選擇의 判斷이고, (44)b는 ‘所在’에 對한 選擇의 判斷이며, (44)c는 ‘形容’에 對한 選擇의 判斷으로서 모두 動作性이 아닌 狀態에 對한 意志를 나타낸다. (44)a, b, c는 모두 動作性에 對한 選擇의 判斷이 아니다. (44)a, b, c에서 ‘겠’이 쓰인 경우보다는 ‘ㄹ 거’와 ‘ㄹ 것’이 쓰인 경우가 選擇의 判斷 즉 意志의 意味가 弱하며, ‘ㄹ 거’보다는 ‘ㄹ 것’이 쓰인 경우에 意志의 意味가 弱하다. 이미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겠’은 排除的인 判斷을, ‘ㄹ 것’은 包括的인 判斷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選擇의 判斷, 즉 意志를 나타내는 경우에 話者에 依해서 이루어지는 選擇의 判斷은 排除的일수록 強할 수 밖에 없다. (44)a, b, c에서 ‘겠’은 選擇의 排除的인 判斷을, ‘ㄹ 것’은 選擇의 包括的인 判斷을 나타낸다. 요컨대 意志나 意圖라고 하는 것은 選擇의 判斷일 뿐, 判斷과 別個의 것이 아니며, 判斷의 한가지일 뿐이다.

(44)d는 動作에 對한 選擇의 判斷이다. (44)d.1은 選擇의 排除的인 判斷이며 (44)d.2는 選擇의 包括的인 判斷이다. 한편 (44)e는 (44)d가 能動文인데 비해 被動文이다. 能動文은 그 動詞가 動作性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被動文은 狀態를 表現하는 것으로서, 前者는 外部의 世界에 對하여 ‘動作을 하는’ 것이며 後者는 外部의 世界로부터 ‘動作을 받거나 입는’ 것이다. (44)e 역시 選擇의 判斷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44)d와 다른 점은 (43)a, b, c에서와 같이 動作이 아닌 狀態에 對한 選擇

의 判斷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44)e.1은 選擇의 排除的인 判斷을 나타내며, (44)e.2는 選擇의 包括的인 判斷을 나타낸다. (44)d, (44)e에서도 ‘근거’가 나타나는 경우가 ‘근 것’이 나타나는 경우보다 選擇의 判斷이 強하게 나타난다.

한편 (44)f.1과 (44)f.2는 話者가 내리는 同一의 判斷과 斷定的인 判斷을 나타내는데, 이 文章들의 主語는 判斷의 主體인 話者 자신과 一致되지 않으므로 選擇의 判斷을 나타낼 수 없다.<sup>6)</sup> (44)f.3 역시 選擇의 判斷을 나타내지 않는다.

‘졌’과 ‘근 것’은 그것들이 나타내는 判斷의 內容이 ‘斷定’이거나 ‘同一’이거나 ‘選擇’이거나에 관계없이 그 機能은 ‘졌’이 排除的인 判斷, ‘근 것’이 包括的인 判斷을 나타내는 것이다.

意志나 意圖는 ‘졌’과 ‘근 것’이 가지는 본래의 기능이 아니며, 다만 判斷의 內容이 되는 것들(즉 斷定, 同一, 選擇, 擬似)중의 어느 한가지일 뿐이다.

## V

以上에서 그동안 많은 論難의 對象이 되어 왔던 ‘졌’과 ‘근 것’을 比較, 論議하였다.

‘졌’은 排除的인 判斷을 나타내며, ‘근 것’은 包括的인 判斷을 나타내는 機能을 지닌다. 意志나 意圖는 ‘졌’과 ‘근 것’의 機能 差異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다만 判斷의 內容이 되는 것들 중의 한가지일 뿐이다.

‘근 것’과 ‘근거’의 差異는 部分的으로는 다루었지만, ‘근’과 ‘것’, 그리고 ‘거’에 대한 각각의 分析이 遂行되지 않는 한 그 機能의 差異는

6) 물론 話者와 文章의 主語가 同一하지 않아도 意志나 意圖를 나타낼 수 있다. 예컨대 “철수가 내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등과 같은 복합문에서 ‘졌’은 철수의 意志를 나타낸다.

밝혀지기 어려울 것 같다.

### 參 考 文 獻

- 高永根(1965), “現代國語의 叙法體系에 對한 研究”, 「國語研究」 15.
- 金完鎭(1970), “似而不同 斷想”, 「국어국문학」 49~50.
- 朴勝彬(1935), 「朝鮮語學」, 조선어학연구회.
- 서정수(1978), “‘고 것’에 관하여”, 「國語學」 6.
- 成書徹(1976), “‘-겠-’과 ‘-고 것이-’의 의미비교”, 김형규교수 정년퇴  
임기념논문집.
- 成書徹(1979), “經驗과 推定”, 「문법연구」 4.
- 申昌淳(1975), “現代韓國語의 用言補助語幹 「겠」의 意義와 用法”, 「現  
代國語文法」, 研究論文選 (4), 啓明大學.
- 李基用(1978), “言語와 推定”, 「國語學」 6.
- 李南淳(1981), “現代國語의 時制와 相에 對한 研究”, 「國語研究」 46.  
國語研究會.
- 李翊燮(1978), “被動性 形容詞文의 統辭構造”, 「國語學」 6.
- 李廷玟(1975), “言語行爲에 있어서의 樣相構造”, 「現代國語文法」, 研究  
論文選(4), 啓明大學.
- 임흥빈(1980), “{-겠-}과 대상성”, 「한글」 170호.
- 周時經(1910), 「國語文法」.
- Lyons, John (1977). *Semantics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